

[유틸리티] 한승훈 연구원 ✉ sngun.han@shinhan.com
[신재생] 최민기 선임연구원 ✉ minki.choi@shinhan.com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주요 지표
(지난주) 9/7	9/8	9/9	9/10	9/11	9/11(금) 기준 (전주대비 변화)
		EIA 미국 원유재고		미국 8월 CPI	원/달러 1,342.6원(-9.1원) WTI 100.1달러/배럴(+9.4%) 두바이유 114.9달러/배럴(+14.7%) Henry Hub 2.8달러/MMBtu(-4.8%) JKM LNG 24.9달러/MMBtu(+2.9%) 호주 유연탄 146.8달러/톤(-1.3%) SMP 127.0원/kWh(-20.8%)
(이번주) 9/14	9/15	9/16	9/17	9/18	
		EIA 미국 원유재고	미국 FOMC 회의	석탄발전 폐지 토론회	

[유틸리티] 대미투자 관건은 구조와 수익성, 참여도

- ◆ 시장에서는 이르면 9월 18일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한 MOU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대미투자의 핵심은 투자 규모보다 지분 구조와 수익성 확보 여부
- ◆ 한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우산형 SPV를 선호. 개별 사업 수익률이 부진해도 다른 사업의 초과수익으로 보전 가능한 구조. 미국은 프로젝트 수익을 개별 정산하는 구조를 원하는 것으로 추정. 한국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차원의 손익 상계가 어려워질 불리할 수 있음. 개별 사업 손실 한도 설정이 가능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시나리오
- ◆ 한미 양국은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언론 보도에서처럼 APR1400이 포함될 수 있을지와 프로젝트에서 한국 업체들의 밸류체인 참여 범위가 중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가 이뤄질 경우에도 의결권과 향후 프로젝트 참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 유의미한 지분 확보 시 IP 관련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제3국 원전 사업 참여 확대 기대
- ◆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은 미국 내 유사 프로젝트 대비 높은 사업비 수준으로 투자단 수익성 검증이 필요. 국내 업체들의 수주가 동반될 경우 관련 밸류체인 수혜 기대 가능. 알래스카 LNG는 공기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 규모와 추가 자금 투입 조건이 중요할 전망

언론 보도 기반 대미투자 예상 규모

추정 분야 및 규모	내용
텍사스 엔시날 LNG 발전소 (223억달러)	6.3GW(1.4GW+4.9GW) 계획 30년 1단계 가스발전 가동 목표
대형원전 (1,200억달러)	AP1000 6기, APR1400 2기 가능성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기대
알래스카 LNG (670억달러)	1,300km 파이프라인, 액화시설 등 건설.

자료: 언론 종합, 신한투자증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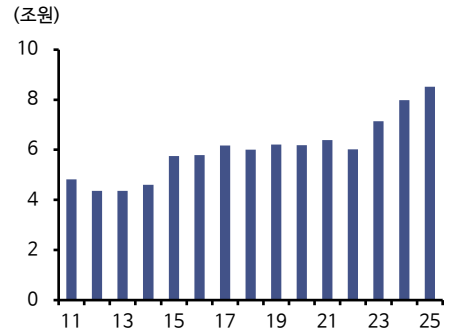


자료: First Nations, 신한투자증권

[전선] 다가오는 국내 전력망 투자 Big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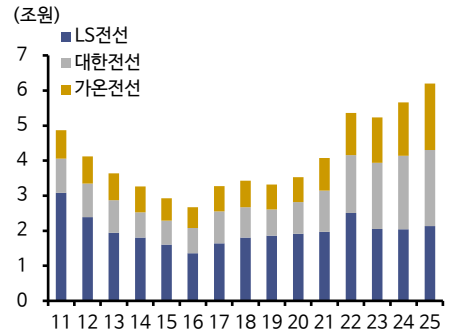
- ◆ 9월 9일 보도된 한국전력의 26~30년 송배전 투자 계획은 총 55.3조원, 연평균 11.1조원. 특히 27~29년 동일 기간 투자액은 34.6조원으로 기존 대비 9.6% 증액. 반도체 및 AI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다년간의 투자 확대 반영
- ◆ 투자집행 뒷받침할 재원도 다변화. 27년 정부 예산안에 한전 현금출자 5천억원 반영.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 시 단기 유동성 부담도 낮아질 전망. 민간 송전망 선투자 허용 및 인허가 단축도 자금·공정 병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 수혜 범위는 제품별로 구분. 345kV, 154kV 등은 납품 가능 사업자가 다양한 것과 달리 500kV HVDC 등 고부가 케이블은 제조업체 한정적. 동해안-동서울 전력망 사업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500kV HVDC 수주가 확정
- ◆ 11차 전기본에서 기 확정된 대규모 프로젝트는 서해안 HVDC 1단계. 새만금-서화성 220km 사업의 기존 타임라인은 30년 준공. 주요 케이블의 발주는 27년 초로 예상
- ◆ 재생에너지 및 반도체 AI 수요 확대는 추가 송변전 투자 요인. 다만 호남권 전력의 현지 소비 확대, 공동접속설비 구축과 기존선로 증용은 장거리 송전 및 신규 선로 투자 부담 완화. 12차 전기본의 발전 및 수요 배치 따라 노선별 투자 규모 조정 가능성. 주민수용성, 재원 확보도 리스크

한국전력 송배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전력, 신한투자증권

국내 전선사 내수 매출 추이



자료: 각 사 자료, 신한투자증권

종목 코멘트

한국전력

- 전력 사용 비수기 진입으로 SMP 급락, 원화 강세 속에서 전쟁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
- 높은 에너지 가격 레벨이 지속되면서 내년 1분기까지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 존재

두산에너지빌리티

- 대미투자 MOU 이후에도 AP1000 기자재 발주, 팀코리아 수주 등 주요 이벤트 대기
- 국내 12차 전기본에서 LNG 발전소, 원전의 신규 물량 추가 가능성에도 주목

유틸리티·신재생에너지 주요 기업 주가수익률 및 수급 동향 (9/11 종가 기준)

업종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원)	주가수익률 (%)						주단 순매수 금액 (십억원)			1M 컨센 변화율 (%)	
			주간	1M	3M	6M	1Y	YTD	개인	기관	외국인	매출액	영업손익
지수	코스피		3.3	8.9	(11.0)	23.2	106.6	64.0					
	코스닥		0.9	(4.3)	(17.7)	(27.8)	(1.7)	(11.3)					
유틸리티	한국전력	21,249.0	3.0	(6.0)	(7.8)	(31.0)	(11.9)	(29.9)	(17.3)	23.3	(5.7)	(0.5)	(16.0)
	한국가스공사	3,415.6	5.4	2.9	3.5	2.4	(8.2)	(5.9)	(7.8)	(5.5)	13.4	0.2	(0.3)
	SK가스	2,284.9	3.4	3.4	9.8	6.9	1.9	9.6	(2.1)	3.8	(1.8)	(0.6)	(4.9)
	SGC에너지	881.9	9.1	8.9	17.2	8.3	161.5	178.8	2.3	(0.0)	(2.0)	0.0	0.0
	지역난방공사	864.9	(1.2)	(0.5)	6.6	(13.9)	(8.0)	(22.5)	0.1	0.0	(0.1)	0.0	0.0
	E1	681.9	1.7	12.8	17.1	2.1	27.6	19.3	(1.0)	(1.3)	2.2	3.9	17.5
	삼천리	496.5	0.2	10.7	14.1	0.3	3.6	6.5	0.3	0.6	(0.5)	(7.2)	2.6
	두산에너지빌리티	58,163.0	14.7	16.6	2.5	(10.1)	48.9	20.6	(167.7)	194.0	(28.2)	(0.0)	(0.1)
원전	한전기술	5,809.4	41.3	52.6	30.6	(3.4)	66.7	68.9	5.0	34.0	(37.7)	(0.3)	(1.1)
	한전KPS	2,218.5	7.6	7.9	0.0	(12.3)	(3.7)	(0.3)	(5.7)	5.8	0.1	(0.1)	(1.1)
	비에이치아이	2,116.6	14.0	25.3	10.3	(31.9)	34.4	30.8	18.9	21.4	(41.3)	1.5	9.3
	태웅	787.3	21.5	22.8	25.1	(17.9)	15.2	52.8	(2.6)	3.9	(2.9)	(1.4)	(12.5)
	LS	9,968.4	6.7	(0.9)	(14.5)	26.5	73.9	59.8	(18.5)	6.0	11.0	3.7	12.9
전선	가온전선	7,563.5	19.8	61.6	41.1	379.1	640.8	454.7	(28.1)	15.6	11.8	(3.9)	(6.1)
	대한전선	5,781.8	7.7	4.2	(20.2)	(2.8)	76.4	28.8	11.3	(3.6)	(8.2)	0.2	0.2
	LS마린솔루션	1,687.3	4.5	1.4	11.2	14.7	33.2	7.9	(0.8)	(0.4)	1.2	2.2	(10.3)
	LS에코에너지	1,489.9	6.7	4.0	(16.1)	15.0	24.9	40.8	(2.8)	4.4	(1.6)	0.0	(0.5)
	한화솔루션	6,701.8	(0.8)	(18.0)	(14.5)	(38.5)	7.6	17.9	25.1	(42.7)	17.3	0.3	1.5
태양광	OCI홀딩스	4,079.5	(4.0)	(20.1)	(22.9)	48.9	128.8	89.7	38.1	(44.9)	9.3	0.0	0.0
	HD현대에너지	1,498.6	(3.7)	12.9	(12.6)	27.4	166.0	144.6	11.8	(23.0)	11.3	(0.1)	(2.6)
	씨에스윈드	2,226.7	12.5	17.6	30.2	2.1	18.7	26.9	(17.4)	22.4	(5.1)	0.1	0.4
풍력	SK오션플랜트	779.7	(10.0)	(10.7)	(18.0)	(31.5)	(57.1)	(38.4)	7.4	(5.4)	(1.8)	(4.2)	(15.4)
	씨에스베어링	127.9	16.1	19.0	8.4	(30.8)	(35.8)	(22.4)	(0.2)	0.1	0.0		
수소 연료 전지	두산퓨얼셀	3,196.1	11.3	37.5	(30.8)	18.7	58.7	69.2	3.8	(11.7)	8.4	0.4	(3.9)
	비나텍	479.7	12.5	(4.0)	(35.7)	(54.7)	35.9	(7.1)	0.6	2.3	(3.2)	0.0	0.0
	범한퓨얼셀	219.5	47.4	48.2	(4.6)	(16.8)	(15.4)	(4.4)	(0.8)	0.2	0.6	0.0	0.0
디젤 로퍼	SK이터닉스	1,768.1	(0.2)	1.6	28.0	80.5	111.0	150.7	3.0	(8.3)	4.8	1.9	(0.7)
	대명에너지	239.0	1.4	(10.5)	(4.9)	(25.6)	(45.4)	(29.8)	0.3	(0.0)	(0.3)	0.0	0.0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신한투자증권

유틸리티·신재생에너지 Peer Group Valuation 테이블

지역	기업	시총 (조원)	주가상승률 (%)			PER (배)		PBR (배)		EV/EBITDA (배)		ROE (%)	
			1W	3M	YTD	26F	27F	26F	27F	26F	27F	26F	27F
유틸리티	한국전력	21.3	2.9	(14.2)	(29.7)	적자	3.2	0.41	0.37	6.6	5.8	9.5	12.0
	한국가스공사	3.4	5.3	1.5	(6.1)	2.9	3.2	0.29	0.27	8.3	8.5	10.3	8.7
	NextEra Energy	249.0	(2.1)	(4.3)	2.5	20.3	18.7	2.45	2.22	15.9	13.8	12.7	12.9
	Iberdola	226.2	1.4	(0.8)	9.2	19.8	18.7	2.44	2.36	12.5	11.7	12.4	12.6
	Constellation Energy	146.3	(0.1)	12.2	(19.4)	23.9	21.4	3.87	3.57	15.0	14.5	20.1	17.6
	Southern Company	142.6	(1.8)	(7.3)	(0.0)	19.0	17.7	2.51	2.33	12.5	11.5	12.3	12.3
	Duke Energy	135.1	(1.6)	(4.4)	1.9	17.8	16.7	1.68	1.57	11.4	10.7	9.6	9.7
	Vistra	72.2	2.9	0.2	(8.0)	17.4	14.6	10.69	6.73	9.8	8.9	55.5	44.4
원전	두산에너지빌리티	58.6	14.7	(3.4)	20.7	171.0	97.1	7.11	6.62	39.4	30.9	4.4	7.2
	한전기술	5.9	42.2	14.7	70.0	98.9	64.4	9.12	8.64	59.5	48.5	9.5	13.8
	한전KPS	2.2	7.5	(8.3)	(0.5)	14.9	13.4	1.58	1.50	8.1	7.6	10.9	11.5
	비에이치아이	2.1	14.9	0.3	32.5	26.0	16.5	8.22	5.48	14.2	11.6	37.7	39.8
	Cameco	61.1	(3.9)	(4.2)	5.7	92.7	52.9	7.81	6.91	33.9	25.1	10.1	13.8
	BWX Technologies	19.9	(6.3)	(22.4)	(13.1)	31.8	28.3	9.15	7.62	22.9	20.2	30.9	28.7
	Oklo	9.8	(9.1)	(37.0)	(49.5)	-	-	2.01	2.19	-	-	(7.7)	(8.0)
	X Energy	8.8	(16.5)	(19.7)	-	-	-	3.31	3.67	-	-	(21.3)	(10.8)
	Nuscale Power	5.4	(11.7)	(12.9)	(39.2)	-	-	1.30	1.27	-	-	(13.6)	(12.2)
	Centrus Energy	4.5	(10.6)	(6.3)	(37.3)	47.0	43.7	2.84	3.34	34.2	22.4	9.7	15.2
전선	LS	10.0	6.1	(18.2)	59.5	15.1	12.6	1.83	1.62	8.9	7.9	12.5	13.7
	대한전선	5.8	7.7	(22.1)	28.8	74.3	33.1	3.22	2.82	23.2	20.3	4.6	9.2
	LS에코에너지	1.5	6.8	(20.5)	41.3	27.7	23.3	5.53	4.53	17.4	15.0	23.0	22.0
	Prysmian	64.6	4.1	(11.6)	47.3	27.0	21.1	4.87	4.12	15.1	12.4	19.1	20.0
	NKT	11.2	(1.1)	(5.7)	15.8	30.0	22.5	2.91	2.62	14.7	10.9	9.9	11.6
	Nexans	10.4	4.1	(2.5)	13.0	19.9	15.5	2.84	2.54	9.0	7.7	15.5	16.5
태양광	한화솔루션	6.7	(0.8)	(14.8)	17.4	13.8	9.6	0.61	0.59	13.2	10.1	4.6	7.0
	OCI홀딩스	4.1	(5.2)	(28.1)	89.1	25.0	14.6	1.01	0.95	9.1	6.8	4.0	6.5
	Sungrow	37.8	(4.6)	(43.3)	(50.7)	12.8	10.5	3.00	2.42	10.0	8.3	24.3	23.9
	퍼스트솔라	32.6	0.8	(21.8)	(20.0)	11.8	8.9	1.96	1.63	7.7	6.3	18.0	19.2
	용기실리콘	18.5	(3.8)	(15.9)	(37.8)	-	55.2	1.68	1.63	24.8	9.9	(8.1)	2.7
	Tongwei	10.8	(3.0)	(19.3)	(46.2)	-	-	1.57	1.59	19.6	10.5	(19.3)	(1.1)
풍력	엔페이즈에너지	7.0	0.1	(33.4)	13.4	18.2	15.9	3.79	2.96	14.8	13.0	10.6	11.2
	씨에스윈드	2.2	12.5	25.4	27.1	11.9	10.1	1.71	1.50	6.9	6.5	15.1	15.9
	SK오션플랜트	0.8	(10.0)	(20.1)	(38.4)	20.6	17.2	0.92	0.88	12.3	10.7	4.5	5.2
	Vestas	48.3	1.2	29.9	24.5	21.8	17.7	6.25	5.15	9.9	8.7	30.5	31.0
	Nordex	15.7	7.1	(1.8)	35.2	19.6	16.1	5.31	4.11	8.5	7.3	30.2	26.0
	Goldwind	15.2	6.3	(13.2)	(8.8)	18.3	14.2	1.72	1.56	11.6	10.2	9.1	10.6
	Dajin Heavy	6.2	6.3	(40.7)	(32.0)	15.2	10.4	2.12	1.81	12.0	8.3	14.9	17.7
	수소	3.3	14.4	(34.3)	72.6	-	324.3	13.92	13.39	-	47.6	(26.6)	3.4
연료	BloomEnergy	117.8	17.1	6.0	217.4	103.6	56.3	40.08	24.30	88.4	45.7	42.5	42.9
	PlugPower	4.3	(0.5)	(23.9)	6.6	-	-	5.32	4.83	-	-	(74.8)	(41.0)
	FuelCellEnergy	1.8	8.3	(6.2)	117.4	-	-	1.02	1.39	-	-	(13.6)	(7.3)
디젤	SK이터닉스	1.8	(0.2)	19.9	150.7	64.5	39.9	5.83	5.09	23.4	21.7	9.5	13.6
	로퍼	78.5	2.5	4.1	32.2	19.9	18.0	1.17	1.15	10.8	9.3	5.9	6.4
	Orsted	40.2	(1.3)	(13.4)	10.6	17.0	13.9	1.30	1.23	7.5	7.1	7.6	8.6
	EDP Renovaveis	23.2	(0.9)	(4.5)	8.1	29.3	27.5	1.24	1.18	11.6	11.7	4.5	4.4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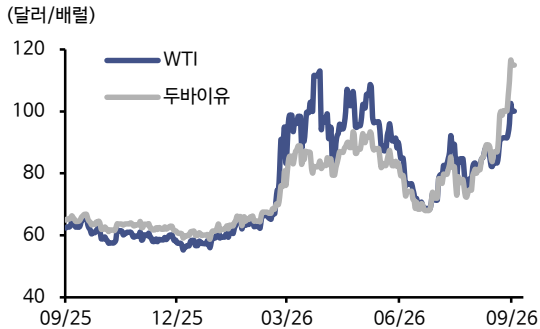
유틸리티/신재생 주요 뉴스

날짜	뉴스	관련 업종
9/7 (월)	미국 2026년 2분기 청정전력 17.1GW 신규 가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ACP) • 누적 청정전력 388GW 및 파이프라인 205GW로 사상 최대 기록 • 유틸리티급 태양광 7.4GW(+102% 이하 YoY), 육상풍력 5GW(+1,105%), 배터리 4.7GW(+97%) 등	태양광 풍력
9/8 (화)	SGC에너지·Vertiv, 군산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협력 (전기신문) • SGC에너지·Vertiv, 군산 AI DC 초기 60MW 전력·냉각 인프라 공동 설계, 향후 최대 300MW까지 협력 확대 • 모듈형 데이터센터에 PowerNexus 통합 전력 솔루션 국내 최초 적용 추진, AI·HPC 인프라 구축 본격화	유틸리티
9/8 (화)	950MW 한빛 2호기 설계수명 만료...수명연장 심사 (에너지경제신문) • 한빛 2호기, 9월 11일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 중단 예정...원안위가 최장 2년간 계속운전 여부 심사 •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소 30GW 신규 발전용량 필요, 기존 원전 계속운전 중요성 확대	원전
9/9 (수)	한전, 5년간 송배전망 55조원 투자...반도체·AI 수요에 9.6% ↑ (뉴시스) • 한국전력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26~30년 송변전 및 배전 사업에 총 55조 3,237억원 투자 계획 • 송변전 32조 9,576억원, 배전 22조 3,661억원 등 작년 계획 대비 투자 규모 급증	유틸리티 전선
9/9 (수)	한전, 5년간 송배전망 55조 투자...메가프로젝트 반영해 9.6% ↑ (뉴시스) • 한전, 2026~2030년 송변전 32.96조원·배전 22.37조원 등 전력망에 총 55.32조원 투자계획 • 2027~2029년 송배전 투자는 기존 계획 대비 9.6% 확대,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 반영	유틸리티
9/10 (목)	재생에너지 인정용량 늘어난다...“원전에 날벼락”? (한국경제) • 12차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 피크기여도 산출법 개편 방안서 ELCC(유효부하유지능력) 도입설 • 재생에너지 및 ESS 실효용량 늘어나나 타 발전원 필요치 과소 계상 가능성, 아직 확정안은 아닌 상황	태양광 풍력 원전 가스발전
9/10 (목)	“韓 대미투자 1호 합의 임박...에너지 분야에 134조원” (에너지경제신문) • 한미, 대미 투자 첫 대형 사업으로 미국 내 원전 최대 8기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투자 방안 최종 합의 • 전체 에너지 프로젝트는 1,000억달러 이상 가능성이 거론되며, 약 200억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도 논의	원전/가스발전
9/10 (목)	공단 PPA 플랫폼에만 인센티브 몰아주기?...고조되는 RE100 시장 왜곡 우려 (전기신문)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PPA 중개플랫폼 연계 인센티브(망 이용료 등 지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 • 직접PPA 확대 위해 플랫폼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확대 필요성 거론	디벨로퍼 태양광 풍력
9/11 (금)	SMR 특별법·시행령 오늘 발효...민관 공동출자 ‘첫발’ (전기신문) • SMR 특별법·시행령 9월 11일 시행, 정부는 ‘35년 경수형 SMR 상용화와 비경수형 SMR 건설 착수 추진 • 정부·공공기관·민간 공동출자 회사 설립과 R&D·실증·사업화 지원 근거 마련, ‘27년부터 상설세계 착수 예정	원전
9/11 (금)	中, 주요제품 '원가산정' 들여다본다...“저가 무질서 경쟁 통제” (연합뉴스) • 중국 당국, 저가 경쟁 공업 제품 생산 영역에 원가 산정 기준 확인 및 원가 이하 판매 확인 시 처분 방침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공급 과잉 및 저가 경쟁 품목 수익성 악화 추세	태양광

자료: 언론 보도 종합, 신한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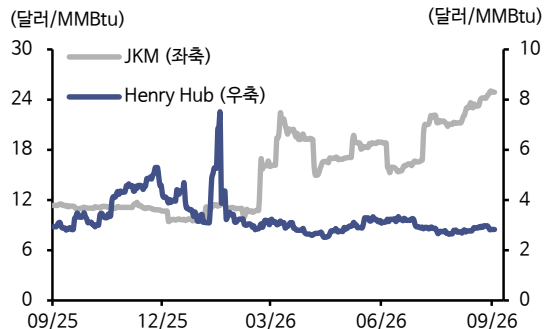
주요 지표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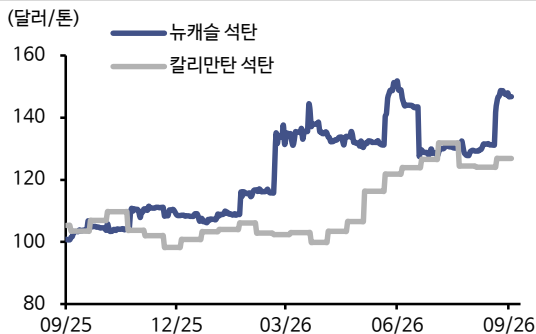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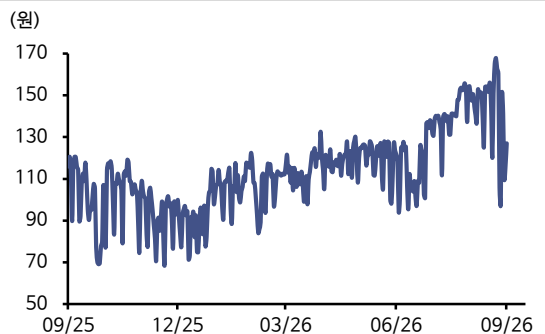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연료탄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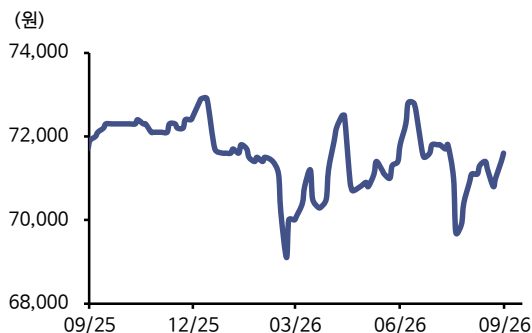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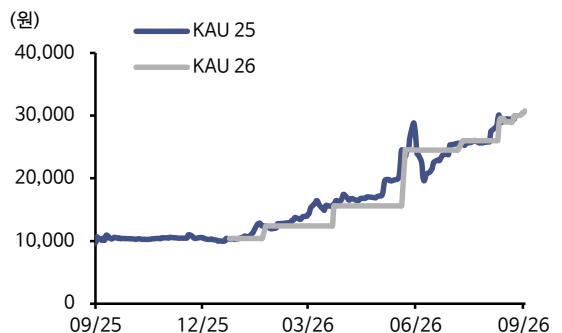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신한투자증권

REC 현물 가격 추이



자료: 전력거래소, 신한투자증권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한승훈, 최민기)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한국전력을 기초자산으로 ELS가 발행된 상태입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 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섹터	◆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은 경우
	◆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6년 09월 21일 기준)

매수 (매수)	94.40%	Trading BUY (중립)	2.24%	중립 (중립)	3.36%	축소 (매도)	0.00%
---------	--------	------------------	-------	---------	-------	---------	-------